우리문화가 쇠퇴한다 — 上 국악

뜯어보지 않은 포장된 선물

국악은 순서
(上) 국 악
(中) 놀이문화
(下) 한 국 화

우리는 멸종되어가는 식물이나 동물에 천연기념물이란 이름을 붙여 보호한다.
그와 비슷한 것이 인간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이다. 이들 역시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대책이다.
어느덧 우리의 문화인 국악이 천연기념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문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3회에 걸쳐 우리문화를 살리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편집자〉

이 응 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소〉

7음계 익숙해 국악감수성 사라져
국악매니아도 상당수 있어

국악은 과연 장사가 되는 상품인가? 이에 대한 일단의 답은 올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 문화방송의 '시미 깊은 물' 폐지 결정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정기 프로그램 개편때마다 폐지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시미 깊은 물'은 일부시청자의 광적인 지지와 여론선동으로 그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제는 공익성에 앞서는 시청률의 논리에 묻혀버릴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국악은 공익성에 기대서만 살아남는가'하는 점이다. 나아가 '왜 국악은 공익성에 머물러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에서 공익성이란 관변의 영역, 그래서 대중 어느 누구의 관심이나 지지도 받지 못한 한계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공익성의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국악은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존재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의식적-무의식적 소통을 통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음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것은 사물놀이이다. 전통농악의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구조를 무대위의 타악주자 4명으로 단순화시켜 일순간에 관중들을 휘감는 그 **황홀경의** 세계. 분명 사물놀이는 우리 음악이 공익성에 기대지 않고도 장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사실 사물놀이는 초등학교때부터 서양의 7음음계를 기본으로 한 평균률에 익숙한 우리들의 음악적 감수성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사물놀이는 우리 음악의 선율이 아니라 리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고, 그 리듬은 서양의 리듬형식과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들어 여러차례 시도되고 있는 '국악과 재즈와의 만남'이라는 공연형식을 보면, 거본 흐름은 재즈선율에 우리의 타악기가 리듬을 밟아주는 것이다. 혹 선율부분을 피리나 태평소, 혹은 해금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재즈의 선율을 우리 악기로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궁중 정재 "선유락"의 공연 장면

다시 '시미 깊은 물'로 돌아가보자. 사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 형식은 '국악과 가요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시도되었던 것이고, 그 때도 가요의 반주를 국악기가 맡는다는 것외에 특이함이나 새로움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두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다면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시도는 국악기로만 구성된 관현악단이 반주를 담당했던 반면, '시미 깊은 물'은 국악연주단과 함께 서양음악밴드가 같이 반주를 했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그 '정도'였을가. 어쩌면 '우리 악기도 가요반주를 할 수 있구나'하는 실험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을까. '시미 깊은 물'에서 들렸던 소리는 꽹과리의 경쾌한 울림외에 별로 없었다. 아쟁과 가야금, 해금과 피리의 소리는 강력한 전자음향에 묻혀버렸고, 대금의 아스라함도, 거문고 농현의 떨림도 도무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음악에는 리듬과 선율이 최소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그 리듬과 선율은 같이 붙어다닌다. 어느 나라의 전통음악이든 그 리듬에 맞는 선율구조를 발전시켜왔고, 역으로 그 선율은 그에 맞는 리듬구조를 발전시켜왔다. 사실 사물놀이는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리듬과 선율을 분리시켰다는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음악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선율에서 분리된 리듬은 분리된 그 순간부터 독자적인 생명력을 이어나간다. 더이상 그 리듬에 얹혀져 있던 선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리듬이 리듬을 낳고, 리듬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선율에서 분리된 리듬이 주는 음악적 감성은 본래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음악의 기본음계는 5음이다. 각 음간의 거리도 일정치가 않다. 초등학교부터 배워온 화음(和音)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저 음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 흐름 역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꺾고', '떨고'하는 등의 추상적인 테두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정악이든 민속악이든 마찬가지다. 어려서부터 서양의 7음음계에 기초한 평균률에 익숙해져버린 우리의 음악감수성과 상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략 12년 동안, 특히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서양음악식 감수성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원리로 존재하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다.

그러나 우리 음악은 아름답다. 아니 우리 음악도 아름답다. 끊어질 듯, 끊어질듯 이어가는 선율이 아름답고, 도처에 산재해 있는 여백의 넉넉함이 아름답다. 진양조의 **흐느적거림**에서부터 자진모리의 뜀박질에 이르기까지 그 장단을 타고 출렁이는 음의 흐름은 그것이 단선율이기에 어울린다. '영산회상'이란 곡은 합주곡으로도 독주곡으로도 실내악편성으로도 연주되는 독특한 곡이다. 주선율은 같지만 연주하는 형태에 따라 주는 느낌은 다르다. 각각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 합주형태에서도 보장되기에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음악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 음악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것에 '왜 그런가'라는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문제는 '그런 음악적 구조가 주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나아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하는게 아닐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컬트(cult)이다. 컬트란 특정 문화장르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문화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주류의 지배적인 문화형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문화수요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집착하는 집단의 등장과 장르의 세분화 현상' 정도를 컬트라 한다면, 국악에도 컬트집단이 존재한다. 당장 PC통신을 켜보라. "시미 깊은 물"폐지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을 볼 수 있을테니. 매니아, 동호회 등으로 엮어진 집단들의 등장은 공익성대(對) 상업성이라는 잣대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들에게 국악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음악 자체가 주는 선율에 매료되고, 리듬에 흥겨워하며 통째로 좋아한다. 아름다움과 좋아함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냥 좋은 것이다. 그러기에 그만큼 강렬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조차도 소비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악은 우리의 것이니까 사랑해야만 한다'는 공허한 의무감에서 국악의 아름다움을 해방시킬 주체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매니아들이다. 그리고 이 소수의 매니아들을 위한 시장도 한 구석에 마련되어 있다. 이들이 있는 한 상품은 만들어지고 또 팔린다.

'국악은 과연 장사가 되는 상품인가?' 질문을 바꿔보자. '국악이라는 아주 이상한 음악이 선사할 아름다움을 살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리고 '그럴 여유가 당신에게는 **있는가.**'

대극장에서 단원들이 궁중협연공연을 하고 있다

문화단신

마당극 '신새벽…떠나다'

세계마당극 큰잔치 '97의 예술감독을 맡은 채희완씨가 고유의 독특한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를 연출해 선보인다.

원효성사의 유명한 일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97세계마당극 큰잔치를 앞둔 우리 마당극의 능동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이번 공연은 '신새벽, 무애가무행(無碍歌舞行)', '선재를 찾아서', '나는 없다', '잠긴 세상 속으로', '없는 길 떠나다'등 총 5마당으로 나뉘어 무대에 올려진다.

어린 시절 가정 파탄으로 인해 절에 맡겨져, 들어오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곁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가고자 하는 선재를 통해 원효스님의 당대 대중교화의 보살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서울의 놀이패 '한두레'와 부산의 극단 '자갈치'가 공동 구성하며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 두레에서 공연된다. ☎ 468-1935

한영애 콘서트

'Rock Blues의 여왕'이란 타이틀로 인식된 한영애의 가을 콘서트(BLUES PARTY)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그동안 록-재즈-펑크-R&B등 다양한 형식을 표출해 내는 그녀는 특히 콘서트에 강한 면모를 보여 이번 콘서트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 3272-2344로.

영화강좌(디렉터 온 디렉팅)

한국영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영화강좌**(디렉터 온 디렉팅)은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대해 직접 소개, 설명하고 관객과 대화하는 방식을 취해 영화의 제작과 소비를 연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강의의 특징은 사회자 역할과 동시에 비평가의 안목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평론가 1인을 감독과 함께 초빙해 보다 원활하고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강좌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 776-2021

인 터 뷰 — 전인현(국립국악원 진흥과)

문화전쟁의 무기 키워야한다

—대중, 그 중에서 대학생 사이에서 국악을 기피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이런 현상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전쟁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웃나라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전통문화 특히 국악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쉽다.**

—방송프로그램 중에 국악과 양악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 있다. 국악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나이드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국악을 비하시킨다며 싫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악인들은 이 프로가 대중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대중과의 만남이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대의 편성 등은 본래 기대와 어긋난 느낌이다.

—한해 몇곡 정도의 신곡이 발표되는지.

—대략 2백여곡이 재편성되고 1백여곡이 탄생한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 알려지는 것은 아리랑이나 타령과 같이 이미 전해지던 음악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 몇몇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악이 활기를 띄는 면이 있는데 국악관계자로서 조언을 해본다면.

—흔히 일반대중들은 학생들이 꽹과리나 북등을 들고 있으면 지레 운동권으로 생각한다. 국악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을 초빙하여 전문적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면 좋겠다.

〈이택근 기자〉

우린 해태에 왔다!

공채 21기
코래드 김지현

신입사원 모집안내

식품에서 전자,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신하는 21세기 해태로 오십시오.
도전과 패기의 세계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1. 모집부문 및 회사

응시직군	모집회사	모집학과 인문·계	모집학과 이공계	응시자격
전자	해태전자(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전자계산학	1.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1997년 2월 졸업예정자
	(주)인 젤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전자, 산업공학, 전산	
	나우정밀(주)	상경계열	기계, 전자, 산업공학, 디자인	
유통	(주)해태유통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전자, 통신, 전산, 디자인	
무역	해태상사(주)	상경, 법학, 영문, 스페인어학	기계, 금속재료, 전자계산학	2. 1969.1.1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광고	(주)코래드	광고, 신문방송학, 마케팅, 기타 상경계 및 인문계 전학과 (AE모집)		
식품	해태음료(주)	상경, 법학, 신문방송학, 인문계열	기계, 전자계산학, 식품공학	3. 해태음료, 해태상사, 코래드는 해외(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우대함.
	해태산업(주)	상경계열	기계, 전자계산학	
건설	해태건설	상경계열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전자계산학, 산업안전공학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및 인성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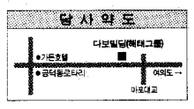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2부 (우편접수시는 필히 수험표 동봉)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다. 공인기관 TOEIC 성적증명서(제출가능자에 한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6. 10. 9(수) ~ 10. 15(화) 09:00 ~ 17: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일요일 제외)
나. 지역별 원서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해태그룹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 B/D	(02)716-8811
경남	해태 부산지사	부산시 북구 화정동 246-1	(051)314-6511
경북	해태 경북지사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221	(053)564-5760
전남	해태 전남지사	광주시 북구 양산동 408-2	(062)571-2316
전북	해태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238-3	(0652)211-3551
강원	해태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5	(0371)43-0445
충청	해태 충청지사	대전시 동구 가양2동 424-1	(042)627-0207
제주	해태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0-3	(064)43-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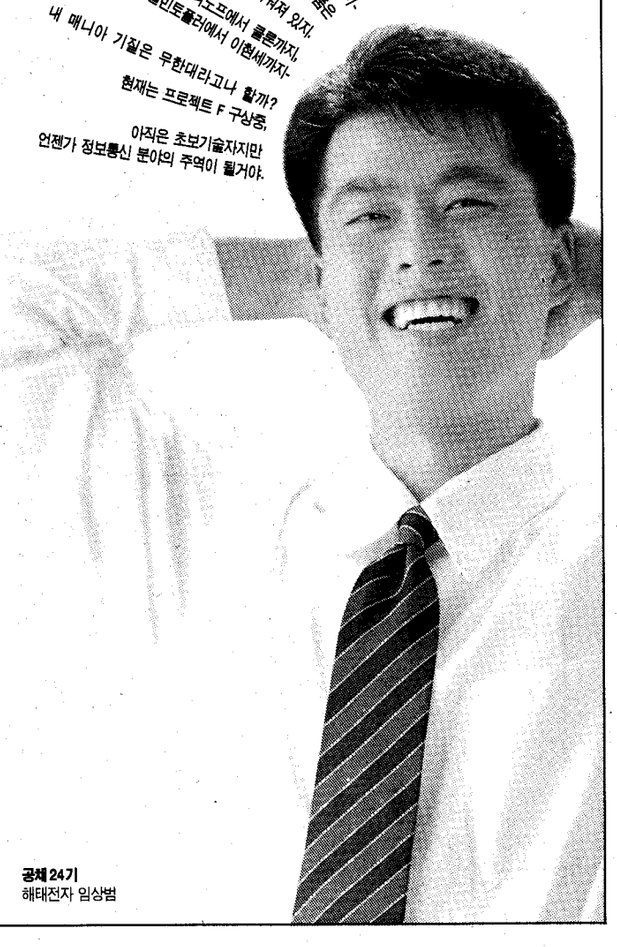
다. 접수처 : 해태그룹 접수처 (마포구 다보빌딩) 문의전화 : (02)716-8811, 717-5765

5. 기타
가. 국가보훈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나. TOEIC 성적우수자 및 이공계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다. 우편접수시는 마감당일 소인분에 한합니다.



해태그룹

어릴때부터 난
두꺼고 조립하는게 취미.
대학 때 만든 최초의 작품은
지금도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지.
라졸마나노프에서 클론까지,
웰빈토플러에서 이현세까지.
내 매니아 기질은 무한대라고나 할까?
현재는 프로젝트 F 구상중,
아직은 초보기술자지만
언젠가 정보통신 분야의 주역이 될거야.


공채 24기
해태전자 임상범